

奎章字藪考

—奎章閣所藏 活字 字譜考, 其二—

尹 炳 泰*

- | | |
|--------------|----------------|
| 緒 言 | Ⅳ. 字譜의 配列과 活字數 |
| Ⅰ. 記 錄 | Ⅴ. 多籍·多收藏字 |
| Ⅱ. 形態와 內容 編綴 | Ⅵ. 避諱現象 |
| Ⅲ. 字譜의 成立 | Ⅶ. 丁酉字의 鑄造事實 |

緒 言

《奎章字藪》에 대하여는 延世大學校 圖書館學會의 會誌에서 丁酉字의 鑄造를 다루면서 언급한 일이 있다.⁽¹⁾ 前稿⁽²⁾에 이어서 奎章閣所藏의 活字 字譜 全部를 재검토함에 따라 새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Ⅰ. 記 錄

《奎章字藪》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은 여러가지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 《奎章閣書目》第 3冊의 摺文院 것만을 수록한 서목에서는 〈常經部〉에 포함시켜 ‘奎章字藪一卷’⁽³⁾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增補文獻備考》에서는 〈字書類〉에 포함시켜 역시 ‘奎章字藪一卷’⁽⁴⁾이라 기록하고 있다. 前問恭作의 《古鮮冊譜》에 引用한 文獻에 따르면 《摺文院書目》의 〈常板 史 掌故〉條에도

奎章字藪一卷 本朝內閣編次⁽⁵⁾

라고 있는 모양이다.

이 《奎章字藪》를 活字의 目錄이라고 밝힌 것은 《朝鮮圖書解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

* 忠南大學校 文科大學 圖書館學科 副教授

(1) 尹炳泰, “丁酉字의 鑄造와 「奎章字藪」”(延世大) 圖書館學會誌, 第 4 號, (1979. 3.), pp. 151~169.

(2) 尹炳泰, “奎章閣所藏 活字 字譜考,” 奎章閣 11, (1988. 12.), pp. 49~65.

(3) 奎章閣 編, 奎章閣書目 (寫本), 第 3 冊, 1. [29B]. 奎章閣藏.

(4)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 (서울: 東國文化社, 1970. 影印本), 下, p. 893 下左.

(5) 前問恭作 編,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1944), 第一冊, p. 405.

한다.⁽⁶⁾ 그리고 우리나라 活字印刷의 중요한 자료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1931년 10월에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서 행한 展示會 때의 일이다. 이때의 展示目錄인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에서는

二八 奎章字藪 寫本 一册 同 (本學藏) 奎章閣의 外閣 즉 校書館에 있던 活字의 自(目)錄으로서, 當時 總數 十五萬一百七十字, 大字 十萬五千六百三十八, 小字 四萬千五百三十二라 쓰임.⁽⁷⁾

이러하여 《朝鮮圖書解題》의 解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奎章閣의 外閣 즉 校書館에 두었던 活字인 壬辰字의 目錄으로 誤認하고 있다. 이 오류는 그 뒤 나오는 圖書解題類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에서는 어떤 활자의 자보인가도 밝히지 않고 있다.⁽⁸⁾

II. 形態와 內容 編綴

《奎章字藪》는 奎章閣에만 소장되어 있는 天下의 孤本이다. 이 책은 필사본이며 線裝 方冊의 1책으로 되어 있다. 그 크기는 세로가 32.5cm 가로가 22.1cm이며, 표지는 卵色이며, 卍字斜交紋의 菱華板으로 누른 흔적이 보이는 종이를 썼다. 앞 表紙에는 ‘奎章字藪<全>’이라고 楷書로 쓴 書名이 있다.

청구기호가 奎7908인 이 책의 제 1장 앞면에는 아랫쪽에 ‘摛文院’, 윗쪽에 ‘帝室圖書之章’과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라는 모두 세가지의 印이 찍혀있다. 이러한 印으로 보아 처음에는 摛文院의 소장이었으나 나중에 帝室圖書館을 설립하려 할 때에 한곳으로 모여졌다가 그대로 朝鮮總督府로 인계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책의 본체는 닥종이에다 野板으로 墨印한 세로로 된 野紙에다 글씨를 먹으로 썼으니, 野板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24.9×17.1cm, 有界, 10行 20字, 小字雙行 2字, 版心: 上白口, 上 花紋魚尾 (四弁, 單線, 單絲) 張次 <一> 欄上 1行 2字,

로 되어 있다. 欄上에 있는 1行 2字는 部首를 표시하고 있다. 제 1장 앞면 제 1항에는 이 책의 卷首題가 ‘奎章字藪’라 있고, 제 2항에는 ‘第一欄’이라고 장의 차례가 표시되어 있다. 제 3항부터 部別로 개개의 글자를 큰자로 쓰고, 큰자 아래에 小字雙行 2字로 주조한 활자의 수를 적어놓고 있다. (그림 1 참조)

部別로 끝나는 항에는 小字雙行으로 ‘以上○○字’와 같이 그 部 전체의 주조한 활자수를

(6)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1932), p. 386.

(7)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 (京城: 同館, 1931), pp. 5~6.

(8)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제Ⅶ집 史部 4 (서울: 同館, 1984), pp. 533~534.

- 1A 1~ 7B10 第一幀 總計一萬三千六百
- 8A 1~17A 4 第二幀 總計一萬三千五百
- 17A 5~27A 8 第三幀 總計一萬七千三百
- 27A 9~36B 1 第四幀 總計一萬四千一百
- 36B 2~46B 9 第五幀 總計一萬五千八百
- 46B10~56B 1 第六幀 總計一萬七千二百
- 56B12~62B 4 第七幀 總計一萬三千八百

이상과 같이 쏘 62장의 字譜 본문이 끝나며, 마지막 장이 제62장의 뒷면 제 5 항부터 제 7 항에 걸쳐

七幀籌大字十萬五千六百三十八字
 小字四萬四千五百三十二字
 凡十五萬一百七十字

와 같이 7개장에 저장한 丁酉字의 大字와 小字의 數와 그 합계가 적혀 있다.

이상과 같은 字譜의 本文 62장이 끝난 다음에, 空白紙 1장이 있고 다음 장에는 주자에 관계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監董

- 寫字官前護軍李宗資
-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金信正
- 勳節校尉守訓練院主簿李陽宇
- 閑 良金逸光
- 士官李彥赫
- 黃 銓
- 吳眞權
- 尹昌疇
- 朴東洽
- 康勉寀
- 刻手南泰伯
- 金振郁
- 唱準 丁致厚
- 銷爐匠金瓊環
- 金致端
- 尹德萬
- 朴守業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奎章字叢》의 전문이 끝난다.

Ⅲ. 字譜의 成立

이 《奎章字藪》는 편집한 방법으로 보나 기록방식으로 보나 대체로 앞에서 다룬 壬辰字의 字譜인 《新訂字藪》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奎章字藪》의 편찬자도 《新訂字藪》의 경우와 같이 徐命膺이 아닌가 생각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자보를 쓴 필체는 《新訂字藪》를 쓴 필체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자보를 쓴 사람은 권말에 있는 <監董> 속의 寫字官인 前護軍 李宗賓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寫字官이란 丁酉字의 字本을 베낀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단언하기는 이른 것 같다.

이 《奎章字藪》를 필사한 시기는, 《新訂字藪》의 野板과 이 자보의 野板의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丁酉字의 구조가 진행중이거나 끝났을 당시 즉 正祖 元年(1777)경이 아닌가 짐작된다.

Ⅳ. 字譜의 配列과 活字數

이 자보의 제 1 장부터 제 7 장까지의 여러장에 포함된 部首들과 구조한 大字의 글자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第一編					
玉部	1444字	人部	4484字	土部	2565字
女部	1500字	卩部(右)	988字	田部	866字
見部	357字	示部	191字	耳部	468字
臣部	790字				
第二編					
口部	3645字	月部	1930字	巾部	1739字
心部	1361字	足部	838字	方部	370字
彡部	337字	豆部	140字	頁部	629字
目部	755字	欠部	361字	骨部	183字
力部	480字	弓部	386字	耒部	124字
身部	157字	彡部	113字		
第三編					
言部	2602字	木部	2555字	禾部	1133字
宀部	1786字	辵部	2108字	彳部	1203字
門部	973字	疒部	713字	木部	957字
戶部	405字	夕部	661字	穴部	632字
走部	276字	食部	742字	戶部	203字
瓜部	81字	片部	341字		

第四編

水部	5068字	竹部	1411字	草部	3823字
立部	683字	皿部	538字	米部	550字
西部	591字	革部	414字	刀部	1049字

第五編

日部	1760字	雨部	726字	日部	811字
广部	1373字	山部	1375字	火部	1181字
鹿部	178字	犬部	776字	豕部	326字
文部	1564字	石部	666字	牛部	426字
車部	717字	黑部	900字	馬部	800字
卩部(左)	1180字	彡部	188字	舟部	262字
鬼部	116字	鼠部	42字	缶部	106字
章部	150字	風部	240字		

第六編

白部	534字	ㄣ部	453字	衣部	2083字
糸部	2270字	酉部	465字	貝部	874字
大部	777字	矢部	233字	丿部	2390字
羊部	142字	子部	483字	斤部	170字
角部	171字	戈部	965字	乳部	394字
巾部	773字	羽部	367字	隹部	452字
爿部	240字	口部	616字	鳥部	1074字
虫部	1325字				

第七編

金部	1634字	才部	2851字	十部	2029字
之部	3777字	乙部	2057字	寸部	234字
手部	197字	齒部	164字	魚部	496字
瓦部	209字	毛部	177字		

이 상에서 살펴볼 때 《奎章字藪》의 部首의 순서는 《康熙字典》이나 《全韻玉篇》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部首의 순서도 아니며, 또 總劃順이나 韻順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新訂字藪》와 맞추어 보면 部首의 순서는 꼭같다. 그런 점으로 보아 《奎章字藪》의 部首順은 《新訂字藪》의 部首順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 하겠다.

V. 多鑄·多收藏字

이 《奎章字藪》에서 같은 部首 속에서의 글자의 배열이 多鑄順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글자마다 얼마나 수장하고 있는가는 그 글자 아래에 작은자로 2행의 주를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장이 많이 되어있다면 바로 많이 주조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래에서는 90字 이상 수장, 즉 주조된 활자의 字를 많은 수부터 차례로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342字 之	276 而	217 也
194 以	193 於	186 不
168 地	166 上, 曰	162 人
160 是	156 天	154 其
143 下	140 至	135 用
127 夫	125 自	124 中, 曰, 八
118 時, 矣	117 知	116 大
115 何, 二, 于	114 無	113 月, 水, 更
112 一, 乃, 此	111 行, 則, 我	110 四, 有, 心, 者, 爲, 事, 乎
109 三, 五, 與, 未, 公	108 君, 文, 然	105 王, 臣, 名, 言, 將
107 六, 古, 從, 別	106 可, 前, 故, 又, 所	102 本, 百, 左
104 相, 生	103 語, 苦, 終	98 得, 後, 千
100 侍	99 盡, 子, 十	95 罔
97 諸	96 亦	92 見, 服, 九, 先
94 道, 州	93 使, 今, 如, 能	
91 禮, 或, 七	90 世	

위에서 보면 語助詞에 해당하는 글자가 비교적 많이 주조·수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丁酉字의 代表字를 고를 때에는 이 多鑄順의 차례에 따라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VI. 避諱現象

앞의 《新訂字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奎章字叢》에서도 避諱의 현상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避諱의 대조는 白麟의 《古書目錄規則》에 있는 〈避諱攷〉⁽⁹⁾를 참고하였다.

- 1代 太祖 兀 * 있음(38A2-2)
- 2代 定宗 曺 * 없음
- 3代 太宗 芳遠 * 두자 모두 있음(32A5-4 및 22A4-10)
- 4代 世宗 禔 * 없음
- 5代 文宗 珣 * 있음(1B3-7)
- 6代 端宗 弘暉 * 두자 모두 있음(16B4-2 및 1B3-1)
- 7代 世祖 瑠 * 있음(1B6-8)
- 8代 睿宗 昞 * 없음
- 9代 成宗 婁 * 없음
- 11代 中宗 澤 * 있음(27B3-9)
- 12代 仁宗 皓 * 없음
- 13代 明宗 恒 * 있음(11A7-2)

(9) 白麟 編, 古書目錄規則 (서울: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1966), p.63.

- 14代 宣祖 昉 * 없음
- 16代 仁祖 祿 * 있음(4A2-2)
- 17代 孝宗 溥 * 없음
- 18代 顯宗 淵 * 있음(27B6-4)
- 19代 肅宗 攄 * 있음(40A1-1)
- 20代 景宗 昞 * 있음(36B10-3)
- 21代 英祖 昉 * 없음
- 追尊 眞宗 緯 * 없음
- 追尊 莊祖 愼 * 없음
- 22代 正祖 祘 * 없음

이를 통하여 보면, 避諱現象은 없든가 아니면 常用되지 아니하는 글자들은 처음부터 주조하지 아니한 것 같다.

VII. 丁酉字의 鑄造事實

丁酉字는 正祖가 만들게 한 여러가지 活字 중에서, 東宮으로 있을 때 英祖에게 칭하여 만든 활자를 제외하고는, 즉위한 다음 처음으로 만든 活字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丁酉字의 주조에 관한 사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鑄造한 時期

正祖가 즉위하자 丁酉字를 주조케 한 사실은 《實錄》에 나타난다. 正祖 元年 8月 3日 丙申條의 기사에 보면,

鑄字成...上在春邸 命宮僚 校正甲寅字 鑄十五萬字 藏于芸閣 印行經書正文·啓蒙集箋 是爲壬辰字 是年 命前平安監司徐命膺 開鑄筭營 以甲寅字爲本 加鑄十五萬字以進 是爲丁酉字...⁽¹⁰⁾

라 하고, 이어 敎를 내려 前監司인 徐命膺을 判中樞의 階로 特陞케 하고 또 奎章閣의 提學으로 다시금 除授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이 丁酉字를 주조한 사실은 正祖가 재위시에 찍은 책의 〈鑄字事實〉에서는 비교적 자주 보이니, 그 예를 들어 보이면 《書傳大全》에서는

我 殿下...即位之元年 復以甲寅字本 鑄十五萬字于關西 藏于內閣 是爲丁酉字 即八字百選等書 而今又印經書...⁽¹¹⁾

이라하였고, 또 《五倫行實圖》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글로

(10) 實錄, 44, p.684下.

(11) 書傳大全, 卷之十, 第63~64張. 奎章閣藏(奎中 225).

…我 殿下… 元年丁酉 用前本 又鑄十五萬字 藏于內閣…⁽¹²⁾

이라 하였으며, 《弘齋全書》에서도

…予於… 臨御元年 命平安道觀察使徐命膺 以甲寅字爲本 鑄十五萬字 於任所 儲之內閣…⁽¹³⁾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丁酉字의 주조는 正祖 元年(1777) 丁酉에 正祖의 命으로 당시의 平安道觀察使로 재직중이던 保晚齋 徐命膺이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다. 《實錄》에 따르면 徐命膺이 平安監司로 任命된 것은 英祖 52年 丙申(1776) 2月 26日이며, ⁽¹⁴⁾ 罷職당한 것은 正祖 元年 丁酉(1777) 6月 25日이다. ⁽¹⁵⁾ 그가 就任과 退任으로 平壤과 서울 사이를 내왕한 날짜를 제한다면 在任 약 1년 사이에 丁酉字의 주조를 시작한 셈이 된다.

그러면 왜 徐命膺에게 丁酉字의 주조를 명하였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그에게 활자 주조의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正祖가 東宮으로 있을 때에 英祖에게 청하여 壬辰字를 주조할 때에도 그 일을 주관하였으니, 이에 대하여는 앞의 《新訂字藪》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두번째 이유로는 그가 正祖의 신임이 두터운 가까운 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正祖는 즉위한 해(1776) 10월에 그가 外任인 平安道觀察使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奎章閣의 提學으로 임명하였으니 그전에 宋의 옛 제도까지 인용하면서 발명한 일이 있다. ⁽¹⁶⁾ 그뿐만 아니라 그의 平安道觀察使職을 罷한 다음에도 丁酉字의 주조가 끝나자 그를 다시 奎章閣의 提學으로 復除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나. 鑄造한 活字數

徐命膺이 丁酉字를 주조할 때에 그 字本은 甲寅字로 하였고, 또 주조한 활자의 수가 약 15萬字나 된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實錄》·《弘齋全書》와 여러가지 〈鑄字事實〉에 의해서도 알 수 있거니와 그 정확한 숫자를 밝힌 문헌으로는 《奎章字藪》의 기록외에도 《板堂考》와 《袖香編》의 기록이 있다. 《板堂考》의 〈活字〉조에는

衛夫人銅字大字十萬五千六百三十八字 }
小字四萬四千五百三十二字 } 丁酉自箕營鑄成⁽¹⁷⁾

(12) 五倫行實圖(整理字), 卷第五, 第25張.

(13) 正祖, 弘齋全書(純祖 14(1814). 活字本(整理字)), 卷百六十三, 第23~24張.

(14) 實錄, 44, p.533, “戊辰以徐命膺爲平安監司…”

(15) 上揭書, p.675下右, “罪平安道觀察使徐命膺職…”

(16) 上揭書, p.633下右, 正祖即位年丙申 10月丙申, “…上平安道觀察使徐命膺 爲奎章閣提學…”

(17) 奎章閣 編, 板堂考(純祖 32(1832). 寫本), 第3張 앞 面.

이라 있으며, 또 <器用>조에서는

衛夫人字減柴坐⁽¹⁸⁾

라 있어 衛夫人字가 丁酉字이며 모두 15萬170字를 주조하여 7坐의 字櫃에 다 수장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袖香編》에서는 <鑄字所鐵木鑄字>조에서

丁巳十月十五日夜 殯殿都監假家失火…鐵鑄字…衛夫人字 十萬五千六百三十八字 小字四萬四千五百三十二字…並被燒⁽¹⁹⁾

라 있어, 哲宗 8年 丁巳(1857) 10월에 있었던 화재시에 타버린 여러가지 활자 속에 丁酉字도 들어있으며 타버린 숫자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여 丁酉字의 실제 숫자는 《實錄》 등에 요약하여 기록한 15萬字가 아니라, 170字가 더 많은 15萬170字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다. 鑄造한 사람들

丁酉字를 平安監營에서 주조한 사실은 《實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의하여 알 수 있었지만, 活字를 실지로 주조한 사람들에 관한 사실은 《奎章字藪》의 기록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앞에서 쓴 <監董>의 기록을 보면 丁酉字의 주조에는 李宗賓을 비롯한 16명의 인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는 壬辰字를 주조할 때에 참여한 사람들도 보인다. 두가지 字譜를 맞추어 보면, ① 壬辰字의 주조시의 書吏인 丁致厚는 丁酉字의 주조시에는 唱準으로 되었으며, ② 刻手의 南泰白은 같은 刻手의 南泰伯으로 끝글자의 白이 伯으로 바뀌어져 기록되었고, ③ 銷鑪匠의 金瓚環은 같은 銷鑪匠으로 되어 있다. 이때에 소임의 명칭에서 가운데 글자가 爐로 바뀌었다. 이로써 짐작하여 보면, 壬辰字를 주조할 때의 몇 사람을 丁酉字를 주조할 때에 동원하여 平壤에서 일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壬辰字를 주조할 때와 丁酉字를 주조할 때에 소임을 맡았던 사람들의 관직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壬辰字의 경우에는 校書館에서 주조한 때문인지 校書館校理·司准·書吏·諸員·庫直 등이 보이는 대신에, 丁酉字의 경우에는 寫字官·土官·唱準과 같은 소임이 보인다. 그 중에서 寫字官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奎章字藪》를 썼든가 혹은 丁酉字의 字本을 배겼을 가망이 있는 직책으로 생각된다. 그 밖의 직책에 대해서는 《平壤志》나 《平壤續志》에 보이고 있으니, 우선 土官을 보면 《平壤志》에

土官

都務司 都務一人 正五品

校簿一人 正六品

(18) 上揭書.

(19) 鄭元容, 袖香編 (서울: 同文社, 1971. 影印本), pp.372~373.

典事二人 正七品⁽²⁰⁾

이라 있고, 《平壤續志》에 보면 營屬으로

左土官五十人

右土官五十人⁽²¹⁾

으로 모두 100인의 土官이 있다. 또 刻手는 《平壤志》營屬條에

刻匠十八名 軍兼十五名⁽²²⁾

이라 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인력에다 平安道地方의 풍부한 물자와 平安監營의 시설을 활용하여 丁酉字가 구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次號에 繼續)

(20) 尹斗壽, 平壤志 (서울: 平南民報社, 1964. 影印本), 第15張 뒷 面.

(21) 上揭書, 第43張 뒷 面.

(22) 上揭書, 第16張 뒷 面.